

Nā Pu'uhonua: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December 7, 2023

Aloha MPC 'Ohana,

Today is not only the Thursday before the Second Sunday of Advent (the Sunday whose theme is peace), but today is also Pearl Harbor Day. And so, mindful of all of that, 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peace.

Jesus sai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Matthew 5:9). But what did He mean by that, and how can a person become the kind of "peacemaker" that Jesus was referring to?

As I was mulling questions like those over in my own mind recently, I ran across something interesting in Mary Kawena Pukui's compendium of traditional Hawaiian knowledge entitled *Nānā I Ke Kumu*. In the second of *Nānā I Ke Kumu*'s three volumes, Ms. Pukui talks about the Hawaiian word pu'uhonua.

Frequently, when one hears that word, it refers to a place – a place of refuge, specifically. As in the famous historical site on the Big Island, Pu'uhonua o Hōnauau (also known as "the City of Refuge").

In the days of Old Hawai'i, if one broke a kapu, one could flee to Pu'uhonua o Hōnauau for refuge. One could find safety and mercy there. Because that's the kind of place it was. It was a place of refuge – a pu'uhonua.

But in volume two of *Nānā I Ke Kumu*, Ms. Pukui relates that in the days of Old Hawai'i, the word pu'uhonua could also be applied to people, not just to places. In other words, a person could be a pu'uhonua themselves – a person of refuge, that is.

And what made someone a person of refuge, a pu'uhonua, was the way they treated other people. Because a pu'uhonua was someone who showed mercy and grace to others. Someone who was safe. Someone who was (to borrow a line from Bob Dylan) "a shelter from the storm." It's said that Queen Ka'ahumanu was such a pu'uhonua.

And although the cultures were very different, I can't help but wonder if maybe that wasn't the kind of person Jesus was also talking about when he sai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In fact, maybe that's how you and I can be peacemakers ourselves – by being persons of refuge who others feel safe to be around because we never fail to show mercy and grace to all.

Me ke aloha,
Pastor Ron

나 푸우호누아: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평화를 주제로 하는 주일) 전 목요일일 뿐만 아니라, 진주만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며,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서 언급하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마음 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고민하던 중, Mary Kawena Pukui의 하와이 전통 지식 개요서인 Nānā I Ke Kumu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Nānā I Ke Kumu의 3권 중 두 번째 책에서 Pukui 씨는 하와이 단어인 pu'uhonua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종 그 단어를 들을 때 그것은 장소, 특히 피난처를 지칭합니다.
빅 아일랜드의 유명한 유적지인 Pu'uhonua o Hōnauau(“피난처 도시”라고도 함)에서와 같습니다.
올드 하와이 시대에는 카푸를 부러뜨리면 푸우호누아 오 호나우나우 (Pu'uhonua o Hōnaunau)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과 자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은 피난처인 푸우호누아(pu'uhonua)였습니다.
그러나 Nānā I Ke Kumu 2권에서 Pukui 씨는 Old Hawai'i 시대에는 pu'uhonua라는 단어가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피난처인 푸우호누아(pu'uhonua)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피난처인 푸우호누아로 만든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푸우호누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했던 사람.
(밥 딜런의 말을 빌리자면)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였던 사람.
Ka'ahumanu 여왕은 그런 푸우호누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문화는 매우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피난처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